

프락치와 스파이...영화 '무간도' 두 남자의 파국

나는 누구인가?...회색 인생 '같은 텃'에 걸린 두 남자의 고뇌



윤여수의 라스트 씬

영화 '무간도'

단순히 이야기의 결말만은 아닐 터이다. 수많은 상징과 은유가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들여다보는 이들이 스스로 그 결론을 맺어주길 바라는 '열린 결말'로서 갈무리하기도 한다. 한 편의 영화가 관객에게 안겨주는 진한 여운이 발원하는 또 하나의 지점. 마지막 장면, 바로 '라스트 씬'(Last Scene)이다. 그래서 '라스트 씬'은 어쩌면 한 편의 영화가 드러내려는 모든 것이 담긴, 단 하나의 장면일지 모르나. 때로는 '에필로그'로서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도 많아서 '라스트 씬'의 여운은 더욱 깊고 커지기도 한다. 표기법상 맞는 표현인 '라스트 씬'이 아닌 '라스트 씬'이라 쓰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경찰 스파이로 범죄조직 잠입한 진영인 범죄조직 프락치로 경찰관이 된 유건명 흰색도 검은색에도 속하지 못한 두 남자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불안이 부른 파열



영화 '무간도'는 신분과 정체성을 둘러싸고 고뇌에 놓인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해 인기를 모았다. 사진은 영화 속 류더호(오른쪽)와 랑자오웨이.

사진제공 | 디스테이션

? 영화 '무간도' 2002년 홍콩의 마이자우후위(백조휘) 감독과 리우웨이창(유위강) 감독이 공동연출한 작품. 범죄조직에 침투한 경찰의 '언더커버' 진영인(랑자오웨이)과 경찰관 신분으로 위장한 조직의 '프락치' 유건명(류더호)의 이야기. 신분과 정체성을 둘러싼 인간적 고뇌에 놓인 두 인물과 그 주변인들의 뛰어난 캐릭터 및 심리 묘사가 이전 홍콩 느와르와 대별되게 하는 명작이다. 각기 '혼돈의 시대'와 '중극무간'의 부제를 단 2, 3편으로 이어지며 큰 인기를 모았다. 할리우드영화 '디파트먼트'의 원작이기도 하다. '무간도(無間道)'는 열반에 이르는 네 단계(사도·四道) 중 '번뇌를 끊고 진리를 얻는 단계'를 뜻한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서울대 북학생협의회 회장 유시민은 러시아의 시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의 저명한 시구를 마지막으로 인용하며 200자 원고지 100장 분량의 긴 항소이유서를 써 법원에 제출했다. 그 전 해 9월 다른 학생들과 함께 '4명의 외부인을 경찰 정보원으로 판단해 감금, 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였다. 유시민은 자신이 학생운동에 뛰어든 수밖에 없었던 과정 등을 뛰어난 글 솜씨로 써내려가며 해당 사건의 주모자로 몰린 억울함과 학생운동가로서 당당한 생각을 항소이유서에서 밝혔다. 올해 6월 케이블채널 tvN의 '알쓸신잡'에 출연한 '작가' 유시민과 오래 전 그가 쓴 항소이유서를 또 한 번 화제가 올려놓기도 했다.

● 프락치 그리고 회색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상주하며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통제했다. 도서관 옥상에 올라 반죽에 몸을 의지한 채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외치는 학생이라도 나타나면 이들은 순식간에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를

불잡아갔다. 학교를 벗어나 가두로 나아가려는 학생 시위대를 막고 있던 교문 앞 경찰은 학교 안으로 뛰어들기 일쑤였다.

이들은 일부 학생이나 시민을 '정보원'으로 삼아 자신들의 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들, '프락치'다. 유시민이 연루됐던 사건 역시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불렸다.

프락치, 표준국어대사전은 '특수한 사명을 띠고 어떤 조직체나 분야에 들어가서 본래의 신분을 속이고 몰래 활동하는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실 프락치는 학생운동권 안에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작은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학생운동의 노선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박이 이어지던 때, 다른 노선의 조직에 스며들어가 활동가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오해를 받는 학생들 또한 적지 않았다. 운동에 대한 회의 혹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번민으로 끊임없이 고뇌하는 이들의 '회색'이 그런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 '침혈쌍웅', 불안의 추억

저우룬파(주운발)와 리우셴(이수현) 그리고 예

첸윈(염천문)이 주연한 우위셴(오우삼) 감독의 '침혈쌍웅'을 본 것은 유시민이 구속되고 난 몇 년 뒤였다. 1989년 7월에 국내 개봉했으니 아마도 그해 가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침혈쌍웅'은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색다른 재미로 다가왔다. (그 2년 전 개봉한 우위셴의 또 다른 영화 '영웅본색'조차 보지 못한 때였다) 남자들의 진한 의리와 비장함 가득한 스토리는 아직 영화에 큰 관심이 없었던 눈에 그리 보이게 했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빛어 넘기 웨이브로 깔끔한 헤어스타일이 돋보였던 리우셴과, 청초하게 아름다운 예첸윈 그리고 그가 부르는 '천취일생'(淺醉一生)의 애잔함이 저우룬파의 비장함 보다 더 또렷하게 맞겨 보였다.

'침혈쌍웅'이 안겨준 신선한 충격과 재미는 이후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볼 만큼 큰 것이었다. 무언가 마음의 답답함이 해소되지 못할 때 잠시나마 속을 뽕 뚫리게 해주는 쾌감을 가끔씩 얻곤 한다.

어쨌거나 '침혈쌍웅'의 그토록 강렬한 여운을 잊지 못하는 건 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했던 때 가슴을 향해 날아온 총탄 같은 영화로만 보였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지켜야 할 것인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스스로 걸어 나아가는 길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고민해야 했던 청춘의 불안감을 쏟아지는 총탄에 맞서며 성당 밖으로 뛰어다니는 아쌍(저우룬파)과 리 경위(리우셴)의 비장한 최후에서 영동하게 위안받곤 했다.

● 더 이상 '회색'일 수 없다

엄혹한 시대를 어쩔 도리 없이 견뎌내야 했던 이들의 흔들리는 양심에 '사명'이란 것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을 거라 믿고 싶다. 다만 그 자책으로 엄청난 애꿎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역시 스스로를 회색하고 고민했으리라.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의 혼란스런 정체 역시 기어이 드러나고 말 일이다. 그러나 '회색'은 더욱 강건하게 자신을 세우고 또 지탱해내려 안간힘을 써야 했을지 모른다.

'무간도'의 진영인과 유건명이 서로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연유도 거기에 있다. 경찰의 스파이로 범죄조직에 스며든 진영인이 정신적 아픔에 휘둘리는 것도 결국은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안간힘 때문이다. 자신이 경찰임을 끊임없이 되뇌며 스스로 채찍질하는 까닭

도 그것이다. 범죄조직의 프락치로서 경찰관을 신분으로 삼지만 이제 프락치의 정체에서 벗어나려는 유건명의 고뇌와 최후의 선택 역시 새로운 자아로서 자신을 찾아 나서려는 몸부림이다.

그 안간힘과 몸부림이 끝내 부딪쳐 각기 정체와 자아에 파열음을 내기에 이르렀을 때 느꼈을 혼란스러움의 실체는 또 어떤 것일까.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기에 더욱 진한 회색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유건명이야말로 회색과 흰색·검은색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했던 때문이 아닐까.

진영인과 유건명은 한때 오디오에 대한 관심으로 우연한 만남을 나눴다. '같은 텃에 걸린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는 한 줄 카피의 의미는 바로 그 우연이 결국 필연이었음을 말해주는 데, 정체와 자아의 파열이라는 '텃'을 향해 서로 아니 스스로를 몰아가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비극이야말로 가련한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쯤에 서 있는지 대체 알 수도 없는 막막함이야말로, 족지 못한 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무간지옥(無間地獄)'이다.

전문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미옥'이 발굴한 보석 오하늬

“어두운 느와르 속 한 줄기 빛...웨이역에 꽃혔죠”

연기자 오하늬(27)는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한 신인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당찬 매력을 가졌다. 그 매력은 스크린에서 더 빛을 낸다. 실제 마주앉았을 땐 수줍음이 느껴지지만 영화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인 듯 당돌하면서도 당찬 모습이다. 베테랑 배우 김혜수나 이선균 앞에서조차 결코 주눅 들지 않는다.

영화 '미옥'(감독 이안규·제작 영화사소중환)이 발굴한 '보석'이 있다면 그 자리는 오하늬의 차지다. 단편영화나 상업영화의 단역 경험은 전부인 그는 '미옥'을 통해 존재를 알렸다. 극 중 김혜수와 손을 맞춰 VIP를 상대하는 여인 웨이 역을 맡은 그는 노출 연기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역량을 뽐냈다. 400여명의 연기자가 웨이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다.

“요즘 가끔 악몽을 꾸다. '오하늬 발연기하네' 같은 댓글을 보고 깜짝 놀라 꿈에서 깬다. 하하! 영화가 개봉하고 내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열떨떨하다. 물론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면서 연기하고 싶다.”

'미옥'의 오디션 정보를 전하던 소속사 매니저는 노출이 필요한 역할인 탓에 선택을

전적으로 오하늬에게 맡겼다. '감당할 수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 역시 덧붙였다. “정작 내게 노출은 중요하지 않았다. 시나리오를 읽고 이야기에 푹 빠져버렸으니까. 정말 욕심났다. 웨이는 어두운 느와르에서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다. 그 안에 쓸쓸함도 있고, 뭘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지 않나. 노출 연기도 스타프의 도움 덕분에 어렵지 않게 찍었다.”

베테랑 김혜수에 뒤지지 않는 존재감 노출 신 개연성 없고 '당찬 연기' 뽐내 "인기 열떨떨...노력하는 연기자 될 것"

쟁쟁한 배우들과의 호흡에서도 그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 '미옥'으로 출발해 앞으로 다양한 영화에서 더 보여줄 게 많을 것 같다는 기대도 갖게 한다. 스크린이나 TV에서 자주 접하는 전형적인 미인형과는 조금 다른 외모도 개성을 더한다.

오하늬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무렵 서독에서 태어났다. 수영선수 출신인 아버지와 메

이크업 아티스트인 어머니는 당시 서독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던 중 오하늬를 낳았다. 이름은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라는 뜻. "이름 따라가는지 하늬바람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 같다"는 그는 "연기자가 되기까지 가족의 영향도 컸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페라 등 공연 메이크업을 주로 하고 있다. 70대인 외할머니는 과거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광주의 유명한 헤어숍 원장이었다. 대를 이어 이모 역시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했다. 예사롭지 않은 집안 내력은 오하늬를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오빠는 영화감독 오동하다. 아직 상업영화 데뷔는 하지 않았지만 '목격자' '사생결단' 등 여러 단편 영화를 연출했다.

"오빠가 처음 찍은 단편이 '꿀꿀깃'인데 내가 연기를 시작한 영화다. 연기자 꿈을 키우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오빠와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다. 재미있는 경험이다."

보여줄 게 많은 오하늬는 앞으로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 '마리오네트', '박화영' 등으로 관객을 찾는다. 비록 비중은 크지 않지만 착실하게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우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연기자 오하늬는 영화 '미옥'을 통해 베테랑 김혜수, 이선균에 주눅 들지 않고 당찬 매력을 선보였다. 자신을 향한 호평에 "열떨떨하다"면서도 "이제 시작이다"고 다부진 각오를 드러냈다. 사진제공 | HB엔터테인먼트